

눈뜨면 오르는 식품물가…삼겹살 사먹기도 버거워요

6월 물가 광주 1.9%·전남 2.2% 올라…지갑 닫고 대인 기피 현상도 전국 평균 두달만에 다시 2%대로 …가공식품 1년 7개월만에 최고

전남대학교 4학년 학생인 김희원(27)씨는 최근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횡수를 줄였다. 김씨는 최소 주 3회 이상 만남을 이어왔으나, 주요 먹거리부터 커피, 영화 티켓 등 모든 물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학업과 병행하는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여자친구와 자주 갔던 삼겹살집은 올 들어 고기와 소주가격이 1000원씩 올랐고, 돌이 먹어도 5만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말했다.

곡성군청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정어진(32)씨는 최근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값 인상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최근 커피 원두가격이 대

폭 상승하면서 소비자 판매가도 올라야 하지만, 가격 인상 시 지금의 얇은 고객층마저 카페를 방문하지 않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정 씨는 “지난해 커피 원두를 1만 8000원가량에 납품받았는데, 이달 기준 2만 3000~2만 4000원 선까지 가격이 뛰었다”며 “유동인구도 많지 않은 군 단위 지역에서 가격을 조금만 인상해도 소문이 퍼져 손님이 줄어든 게 뻔하니 가격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월급 등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끝없이 오르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대인 관계마저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5로 전년 동월(114.38) 대비 1.9% 상승했다.

앞서 광주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4월 1.9%를 기록한 뒤 5월 1.5%로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다시 0.4%포인트(p) 상승 전환했다.

이번 물가 상승 전환은 지난달 이란-이스라엘 간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및 주요 먹거리 물가 상승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난이 체감하는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에서 식품물가와 식품외물가가 각각 3.0%, 1.4%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고등어(26.1%), 달걀(18.8%), 마늘(24.3%), 커피(16.7%) 등 먹거리

와 자동차유류LPG(11.3%), 도시가스(6.5%) 등에너지 물가 상승폭이 컸다.

이밖에 맥주(6.1%), 생선회(11.2%) 등 외식비도 뛰었고, 각종 서비스비용 상승세도 지속됐다.

같은 기간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8에서 117.22로 2.2% 상승했다. 전남 소비자물가는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하며 1% 상승폭까지 완회했지만, 한달만에 다시 2%대 상승률로 재진입했다.

전남 생활물가는 식품물가가 1년전보다 3.5%, 식품외물가는 1.7%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5.8%), 맥주(2.2%) 등 외식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 가전제품수리비(25.8%) 등의 상승폭이 컸다.

전국적으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서는 등 물가상승 기세가 심상치

않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31로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에서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 5월 1.9%로 떨어졌지만 지난 달 다시 2%대를 기록했다.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품목별로 가공식품이 작년 동월 대비 4.6% 올랐다.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빵(6.4%), 커피(12.4%), 햄 및 베이컨(8.1%) 등에서 오름세가 컸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이슈가 된 라면 가격은 작년보다 6.9% 상승했다. 2023년 9월(7.2%)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상의 “호남고속도로 확장 재추진 환영”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가 광주시가 동광주~광산C 구간(11.2km) 확장사업의 시비 투입을 공식적으로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7934억 원 규모로 방음벽 설치와 도로 확장, 부대시설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당초 한국도로공사와 광주시가 50%씩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광주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사업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려고 했다. 하지만 올해 확보된 국비 400억원이 정부 추경안

에서 삭감되는 위기에 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에서 시비를 투입하고 정부 추경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상의는 “광주시가 최근 세수 감소와 도시철도 2호선,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대형 현안사업 추진으로 인해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려고 했다. 하지만 올해 확보된 국비 400억원이 정부 추경안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서민급전 카드론까지 막으면 어떻게 사나

정부 신용대출 규제 포함 논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긴급자금줄’인 카드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평균 수백만원대의 카드론 소액 대출마저 막힐 경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카드론은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 소득 한도 내에서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추가로 카드론을 받는 것도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일부 차주들이 카드론까지 끌어다 주택을 매입하는 ‘영끌’ 사례를 차단하려는 목적

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은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 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카드론의 최대 한도는 5000만원인 데다 평균 800만원가량의 소액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의 성격이 부동산 투기보다는 생계나 소상공인의 운영자금에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게 카드론은 사실상 마지막 자금줄”이라며 “은행 대출 문턱이 높은 상황에서 카드론까지 막히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사채 등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국은행 17일 DJ센터서 지역경제 심포지엄

한국은행은 “오는 1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경제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의 대응’을 주제로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경제 심포지엄은 기업·학계·정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역경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환영사와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션1과 세션2로 나눠 발표가 이어진다.

세션1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지역경제의 도전 및 대응’을 주제로 김기훈 고려대 교수와 정희완 한국은행 과장이 발표하고, 신위뢰 전남대 교수와 주하연 서강대 교수가 금융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사회로 토론에 참여한다.

세션2는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과 서성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며, 박완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의 사회로 오병기 전남연구원 실장과 차성현 전남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대기업 78% “하반기 투자, 상반기와 비슷”

축소 13.3%·확대 8.3%

국내 대기업 10곳 중 8곳이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 수준의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120개 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투자 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78.4%는 올해 하반기 국내 투자 계획이 상반기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상반기보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3.3%,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8.3%였다.

투자 축소를 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미국 트럼프 2기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33.3%), ‘내수 시장 침체 지속’(25.0%), ‘고환율 등 외환-원자재가 상승 리스크’(14.6%) 등을 지목했다.

투자 확대를 계획한 기업들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기대’(20.0%), ‘노후화된 기존 설

비 교체·개선’(20.0%), 업사이클 진입 또는 업황 개선 기대(16.7%)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기업들은 최근 수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신규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하반기에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수 기업이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해나 기자 khn@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75.06 (-14.59)
↓ 코스닥	783.17 (-1.50)
↑ 금리 (국고채 399년)	2.483 (+0.029)
↑ 환율 (US D) 〈오후 4시 35분 기준〉	1359.00 (+3.10)

HS효성첨단소재, 친환경 소재 앞세워 지속가능 미래 선보인다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참가 재활용 소재·순환경제 기술 소개

HS효성첨단소재가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소재와 기술 등을 선보인다.

2일 HS효성첨단소재에 따르면 이날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전시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해 친환경·재활용 소재와 순환경제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외 2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모여 순환 경제 정책과 기술, 산업 동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HS효성첨단소재는 라이오셀 타이어 보강재, 리사이클 오토모티브 플로어카펫트·보조매트, 폐에어백 분리 기술, 리사이클 시트벨트 등 자원 순환을 실현하는 선진 소재와 기술 등을 알린다.

라이오셀 타이어 보강재는 목재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를 원료로 생산한다. HS효성첨단소재 라이오셀 타이어코드는 타이어코드 업계 최초로 삼림 경영 인증 서비스(FSC) 인증을 취득했다.

리사이클 플로어카펫트와 보조매트는 기존 대비 재활용 소재 함유율을 3배 높여 탄소 배출량을 34%가량 줄일 수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폐에어백의 코팅층을 분리

한 후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는 해중합 기술과 폐 안전벨트를 새 안전벨트로 재탄생시키는 순환 재생 시스템도 선보인다.

임진달 HS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페스티벌을 통해 당사의 친환경 기술 개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게 되어 뜻깊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과 친환경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공급망 ESG 평가 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 평가에서 전 세계 180여 개국 13만 개 이상 기업 중 상위 1%에 부여되는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메달’을 획득하며 지속 가능 경영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은행 국내 금융권 최초 유학생 전용 신용대출 출시

광주은행은 “지난 1일 국내 금융권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 전용 상품인 ‘TOGETHER 유학생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학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 상품으로, 유학생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낮추고, 다양한 상환 방식을 제공한다. 특징이 있다.

대출 신청 대상은 국내 대학 (전문)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며, 지원 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일본,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등 총 12개국이다.

대출 한도는 1인당 100만~300만원까지로, 대출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다. 상환 방법은 고객별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일시상환, 수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자격조건에 따라 대출 기간이나 상환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



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 외국인전용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문수 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 부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대출 상품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유학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상반기 금 거래량 역대 최대…개인 비중 커

가격 지난해 평균 대비 37% 상승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상반기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2025년 상반기 KRX금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 거래량은 37.3톤으로 2014년 한국거래소 금 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9.0톤) 대비로는 4배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연간 거래량(26.3톤)도 이미 넘어섰다. 투자자별 거래 비중은 개인이 46.9%로 가장 컸으며 기관(34.0%), 실물 사업자(19.1%) 등 순이었다. 개인 비중은 작년 대비 3.9%포인트(p) 늘었으며,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개설한 금 거래 계좌 수도 지난 3월 기준 145만개로 작년

(132만개) 대비 10% 늘었다.

올해 상반기 1kg(킬로그램)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의 평균 가격은 1g당 14만 4000원으로 작년 평균(10만6000원) 대비 36.7% 상승했다.

상반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로 금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TN) 등 금융상품이 각각 1종목씩 신규 상장되면서 금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분석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